

李 “자주국방 전술·전략 준비… 고유가 지원금 신속 집행”

李 대통령, 자주국방 실현 강조
글로벌 사우스 외교 지평 확장
국토부·재경부, 부동산 정책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자주 국방을 강조하며 “왜 자꾸 우리가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어가 어려운 것 같은 불안감을 갖느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군사 안보 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일부 세력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국민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지금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달라”며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외부에) 의존을 하나.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일각에서라도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라도 가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자체적인 군사작전 역량은 준비하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전략·작전계획을

짜고 할 준비를 해놔야 한다. 전술·전략도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그런 차원에서 전작권 회수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무형의 정신적 자산, 전략 체계도 다 갖추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외 실용외교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주 인도·베트남 국민 방문에 대해 “이들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장기적인 국외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외 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에 주로 분포한 개도국)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가야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면서 “전통적인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전날(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고유가 피해 지원금에 대해 “지난해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유사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을 세밀하게 살피고, 관련 추정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보고가 있었다. 또 비거주 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KB금융그룹 |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일상이 잠시 멈춰도 KB손해보험과 다시 출발

속상한 일이 생겨도 이상한 일이 생겨도
일상은, 멈춰선 안되죠

당신에게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일상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KB손해보험이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일상을 지키는 힘 | KB손해보험]

KB 손해보험

정부, 핵심사업 소재 수급 점검 석화 가동률 상향 등 총력 대응

중동긴장 고조… 국제유가 상승세
“주요 소재 유통단계부터 면밀히 관리”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와 가스 가격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 현장의 필수 물품과 반도체·자동차 등 국가 핵심 산업 소재의 수급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국내 공급망 안정을 위해 비축유 스왑 및 석유화학 가동률 상향 등 총력 대응 중이다.

산업통상부가 28일 발표한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전날(27일) 기준 국제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날 7시 기준 브렌트(Brent)유는 전일 대비 0.1% 상승한 배럴당 108.30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쟁 이전인 지난 2월 27일 대비 49.4% 오른 수준이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보건·의료 분야 물품을 최우선 공급 품목으로 지정했다. 수확제 포장재는 6월 말까지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대체 공급 방안을 테스트 중이다. 특히 주사

기류의 경우 지난 14일 시행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에 따라 27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산업 소재는 아직까지 큰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헬륨과 알루미늄은 미국과 말레이시아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해 대응 중이며, 조선업에 필수적인 에틸렌 가스는 석유화학사와의 협의를 통해 5월에도 정상 공급하기로 했다. 반도체용 브롬화수소 역시 일본(46%)과 미국(25%)을 중심으로 차질 없이 수입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6744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 나프타와 기초유분 등 핵심 원료의 수입단가 차액 50%를 지원한다. 이에 응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도 가동률을 높이며 국내 공급 물량 확보에 동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유통 단계에서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metro

“사양 차등화 등 원가부담 흡수 움직임도”

>> 1면 ‘구독형 콘텐츠…’서 계속

애플도 원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전략 조정 가능성을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맥루머스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인 아이폰18 일반 모델의 디스플레이와 칩 사양을 일부 조정할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아이폰18 일반 모델의 디스플레이 사양이 전작인 아이폰17보다 낮아지고 아이폰18e와 유사

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는 애플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일부 사양을 낮추려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은 가격 민감도가 높아 판매가를 올리기 쉽지 않은 만큼 최근에는 구독형 혜택이나 서비스 결합으로 체감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 부각되고 있다”며 “일부 제조사에서는 제품 사양 차등화 등으로 원가 부담을 흡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